

글로벌기업, 글로벌지역 그리고 투자유인의 인센티브 패키지: 한국기업의 유럽연합 Objective 1·2 지역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정성훈 (한국산업기술재단 선임연구원)

1. 서론

1990년대 초반 단일유럽시장(Single European Market)의 완성은 유럽통합에 대한 염세주의적인 시각을 낙관주의적인 시각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중반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유럽통합의 경제적 이득을 평가했던 보고서들에 의하면, 통합으로 인해 회원국가간 경제격차도 완화되었으며, 경제성장도 점진적으로 달성했다는 견해들도 제시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European Union)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는 유럽통합의 심화 및 확대과정은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거시적·미시적 정책적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EU의 주변지역들간의 다국적 기업 유치에 관한 출혈경쟁이다.

이 논문은 한국기업의 EU Objective 1지역(less prosperous region) 및 Objective 2지역(region facing structural difficulties or conversion)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EU 주변지역들의 투자유치전략을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대(對)유럽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시기적으로 유형화하여 고찰한다. 이는 한국투자와 유럽통합과정과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둘째, 해외투자유치를 둘러싼 회원국가들간, 도시 및 지방들간의 경쟁을 EU Objective 1·2지역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EU Objective 1·2지역들이 한국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제공한 인센티브 패키지의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기업 및 지역 발전의 맥락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2. 한국기업의 對 유럽 해외직접투자동향: 대륙적 · 국가적 차원

1) 대륙적 차원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대유럽 외국인투자(inward direct investment) 흐름은 1980년대 중반이후 더욱 가속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투자의 경향은 유럽통합의 강화 및 확대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의 대유럽투자의 견지에서, 한국 투자의 특성은 네 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 1) 수출시장 확대에 토대를 둔 시장추구형 투자(1978-1987), 2) EU의 무역규제에 대응한 제조업 중심의 방어적 투자(1988-1993), 3) 방어적 속성을 지닌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유럽연합) 및 공격적인 투자(동구유럽)(1994-1996), 4) 1997년 한국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의 표류.¹⁾

이와 같은 시기적 유형화는 다음 몇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시장추구형 투자(제1기)에서 방어적 투자(제2기)로의 이행과정이 지닌 함의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투자는 유럽, 특히 서유럽의 개별국가 시장을 겨냥한 시장침투형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당시 투자는 주로 무역관련 판매법인 및 지사들의 설립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및 기존 시장의 확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강화된 EU의 무역규제의 강화는 기존 한국 투자의 본질을 바꿔놓았다. 제2기 동안 한국투자는 주로 EU의 무역규제 회피를 통한 방어적 투자이었으며, 제조업중심의 투자로 전환된다(Jung, 1999a). 유럽통합의 강화는 무역규제에 있어서도 공간적인 규모의 변화를 겪게 된다. 즉 기존 무역규제가 서유럽의 개별 국가들에 의해 취해진 것이라면, 이 시기부터의 무역규제는 EU 이라는 초국가적인 기구에 의해서 취해지게 된다. 이는 기존 국가 중심의 통합과 보호주의 정책이 보다 확대된 초국가적인 지역 통합과 보호주의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제시해 주는 좋은 증거이다 (Phelps, 1997: 21).

둘째, 방어적 투자에서 제3기로 - '방어적 속성을 지닌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유럽연합) 및 공격적 투자(동구유럽)' - 이행이다. 이

1) 이에 대한 자세한 제시로는 Jung(1999b) 참조.

시기는 투자는 당시 한국 정부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맥락에서 1980년대 중반 3저호황으로 인한 한국 대기업들, 특히 재벌들의 국제 신용도 상승은 EU에서의 공격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이 시기 투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만성적으로 대량실업에 시달려온 회원국들과 회원국들의 개별 지방정부들은 본격적으로 한국투자유치경쟁에 나서게 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영국 북동부에 3,000여명, 구동독 지역에 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LG 전자는 영국 웨일즈 지역에 6,000여명의 고용창출을, 대우전자는 프랑스 로렌 지역에 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투자 계획은 유럽의 중소기업도 도시들의 강력한 경제기반이 될 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에서 이러한 투자계획은 한국의 금융위기이후 '계획'으로 그치고 만다. 둘째, 한국의 대동구유럽투자의 급신장이다. 이는 주로 대우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 당시 투자는 1980년대 후반이후 동구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이후 그들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관련된 '보다 활발한' 투자개방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제3기에서 제4기로의 이행이다. 이 시기는 제3기에서의 한국 재벌들의 과잉투자계획에 대해 몇몇 유럽언론들이 가졌던 의혹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1997년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하자마자 EU내 한국 재벌들 및 중소기업들은 투자계획 축소, 동유럽으로 입지이전, 고용축소, 공장폐쇄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한국투자가 유럽의 지역에서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면서 표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투자의 불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EU 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정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금융위기 이후 한국투자의 불안정성은 금융위기 자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기 보다는 기존 불안정성이 강화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투자의 본질, 즉 EU의 무역규제에 대한 '방어적 투자'의 한계에 기인한다. 제품생산이나 상품시장의 견지에서 기업의 전용기술의 확보없이 단순히 무역규제

를 회피하기 위한 투자는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고임금의 서유럽에서 비용경쟁력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한국 3대 가전 업체의 컬러 TV, VCR생산에 있어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동구유럽을 향한 유럽통합의 확대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들에게 동구유럽으로의 입지이전을 통한 저비용입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동향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기업들의 대유럽 투자는 EU의 통합과 확대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한국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는 5가지 주요 동력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EU의 무역규제 강화, 2) 유럽단일시장의 형성, 3) 회원국들의 외국인 투자개방정책, 4) EU 주변지역(경제적 낙후지역)의 외생적 지역발전전략, 5) 구동구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이후 시장경제로의 이행. 이후 장들에서 이러한 동력들과 한국투자와 관계를 보다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2) 국가적 차원

조화로운 유럽을 향한 EU의 지역화는 회원국간, 도시 및 지역들간의 불균등성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불균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각 국가 (또는 개별 도시 및 지역)가 지닌 자원적, 환경적, 인문적 자산의 차별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자산을 지닌 국가나 지역이라 할 지라도, 한국기업의 입지적 선택성 및 EU 개별국가 및 도시들의 한국투자의 정책적 선택성에 기인한다. 이는 자본의 세계화가 국민 국가의 종말이나 지리적 종말을 촉진시킨다고 예견했던 주장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5대 회원국-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에 집중해 있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 투자의 회원국별 점유율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영국과 독일이다. 이 두 국가는 한국투자의 견지에서 선두다툼을 지속해 왔다. 1987년까지 독일은 EU 회원국들 중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1993년까지 선두자리를 영국에게

내 주었다. 이는 한국 투자의 동향이 1987년이전까지 무역업 중심이었고, 이후 제조업중심이었다는 동향과 일치한다. 한국기업에 있어서 독일은 생산기지였다기 보다는 대륙시장과 동유럽시장에 접근 용이한 판매기지였다. 그러나 1988년이후 한국제조기업들의 영국으로의 활발한 진출은 그 선두를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이후 이들간의 선두다툼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독일 통합이후 몇몇 한국제조업체들의 구 동독지역으로의 진출과 영국에서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그 부분적 이행의 시기적 차별성에 기인한다. 두 번째 그룹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이다. 실제로 통계에 나타난 네덜란드의 투자액은 심하게 왜곡되었음을 감안하면, 프랑스가 투자점유율의 견지에서 세 번째의 순위를 점하게 된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 그룹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우의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한 제조업 투자와 기타 다른 기업들의 무역업에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은 앞선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과 비교해 볼 때, 투자규모나 제조업과 무역업 투자의 비율의 견지에서 중간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아일랜드이다. 이 그룹의 특징은 이태리를 제외하면, 제조업 투자의 집중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 무역업 투자의 비율이 낮은 그룹으로 시장보다는 생산에 초점을 둔 지역들이다. 네 번째 그룹은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으로서 투자순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제조업 및 무역업 투자가 미미한 규모로 이루어진 국가들이다.

이러한 투자유치국들의 차별적인 그룹형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조화로운' 유럽을 향한 '단일유럽시장'의 형성과 유럽의 '요새화'를 지향하는 EU의 역외 생산자들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는 관련 한국기업을 역내로 포섭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견지에 살펴보면, 회원국내에 '이질적인' 경제, 사회, 정치, 지리적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질성은 한국기업들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과 더불어 순위변동에 영향을 준 주요 동력이 되었다. 즉, 한국기업의 경우 초기 유럽에서의 투자실패경험, 저생산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입지이전, 회원국들의 국가 및 지역경제 변화, '사회헌

장' 채택여부를 둘러싼 회원국들간의 정치경제적 갈등, EU수준에서의 구조기금 배분과 관련된 투자인센티브 패키지 등은 이러한 순위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3. 한국기업의 EU Objective 1·2지역 해외직접투자동향

1) 한국기업의 EU Objective 1·2 지역 해외직접투자 동향

한국의 대 EU 직접투자를 도시 및 지역의 규모에서 보면, 투자분포의 불균등성은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한국의 대 EU 무역업 투자의 경우, 한국의 투자는 EU내 역사도시들, 런던-암스테르담-파리-프랑크푸르트-밀라노를 축으로 하는 메트로폴리탄 성장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의 경우, 로레인(프랑스), 안스버그(독일), 북아일랜드(영국), 타인 앤 웨어(영국), 리스본(포르투갈), 카달로니아(스페인), 동베를린(독일) 등 EU의 주변지역(EU 지역 GDP 평균 100이하에 있는 지역들)에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 방향의 차별성은 '방어적' 투자라는 투자 성격의 동질성으로 인해 투자 유치지역의 성격에 있어서 유사성을 지닌다.

제조업의 견지에서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EU 개별지역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기업의 투자가 EU objective 1·2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기업의 투자는 비록 임금수준은 다를 지라도, 이들 지역의 장기적으로 누적된 대량실업과 맞물려 있다. 둘째,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지역에서 외국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소위 제도적 패키지라 일컫는 투자인센티브는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EU 수준이나 개별 지역들의 수준에서 보면, 투자인센티브는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먼저, 투자인센티브는 그 원천의 많은 부분을 EU 구조기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EU차원에서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해 분배한 이 펀드가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쓰이게 됨에 따라, EU내 개별지역들은 투자유치에 있어서 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경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간 발전의 격차는 완화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뒷따르고 있다.

<표 1> 한국기업의 EU 지역 무역업 투자 건수 (1995년; 상위 10개 지역기준)

NUTSII 지역코드	지역명	건수	총 건수 대비 비율(%)
DE71	Darmstadt	26	25.0
UK55	Greater London	16	15.4
DEA1	Dusseldorf	13	12.5
FR1	Ile De France	10	9.6
NL32	Noord-Holland	8	7.7
IT2	Lombardia	8	7.7
UK53	Surrey, et. al.	3	2.9
NL33	Zuid-Holland	2	1.9
BE21	Antwerpen	2	1.9
UK52	Berkshire, et. al.	2	1.9
상위 10개 지역 총계		90	86.5(100.0)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1 지역 총계		0	0.0(0.0)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2 지역 총계		0	0.0(0.0)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1·2 지역 총계		0	0.0(0.0)
기타 EU 지역		14	13.5
총 계		104	100.0

자료 : Jung, 2000, p.289.

<표 2> 한국기업의 EU 지역 무역업 투자액(1995년; 상위 10개 지역기준)

(단위 : US\$1,000)

NUTSII 지역코드	지역명	금액	총액 대비 비율(%)
DE71	Darmstadt	97,655	20.5
DEC	Saarland	93,430	19.6
UK55	Greater London	69,965	14.7
FR1	Ile De France	69,797	14.7
UK53	Surrey, et. al.	43,741	9.2
DEA1	Dusseldorf	27,751	5.8
ES51(Objective 2)	Cataluna	20,340	4.3
IT2	Lombardia	14,282	3.0
UK51	Bedfordshire, et. al.	9,750	2.0
UK52	Berkshire, et. al.	6,048	1.3
상위 10개 지역 총계		452,759	95.0(100.0)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1 지역 총계		0	0.0(0.0)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2 지역 총계		20,340	4.3(4.5)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1·2 지역 총계		20,340	4.3(4.5)
기타 EU 지역		23,594	5.0
총 계		476,353	100.0

자료 : 표 1와 동일.

<표 3> 한국기업의 EU 지역 제조업 투자 건수(1995년; 상위 10개 지역기준)

NUTSII 지역코드	지역명	건수	총 건수 대비 비율(%)
UKB(Objective 1)	Northern Ireland	6	11.8
FR41(Objective 2)	Lorraine	4	7.8
DE71	Darmstadt	3	5.9
IE(Objective 1)	Ireland	3	5.9
ES51(Objective 2)	Cataluna	3	5.9
UK11(Objective 2)	Cleveland, Durham	2	3.9
DEA2(Objective 2)	Koln	2	3.9
UK13(Objective 2)	Northumberland, et. al.	2	3.9
UK55	Surrey, et. al.	2	3.9
PT13(Objective 1)	Lisbon	2	3.9
상위 10개 지역 총계		29	56.9(100.0)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1 지역 총계		11	21.6(37.9)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2 지역 총계		13	25.5(44.8)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1·2 지역 총계		24	47.1(82.8)
기타 EU 지역		22	43.1
총 계		51	100.0

자료 : Jung, 2000, p.290.

<표 4> 한국기업의 EU 지역 제조업 투자액(1995년; 상위 10개 지역기준)

(단위 : US\$1,000)

NUTSII 지역코드	지역명	금액	총액 대비 비율(%)
FR41(Objective 2)	Lorraine	91,192	23.2
DEA5(Objective 2)	Arnsberg	39,258	10.0
UKB(Objective 1)	Northern Ireland	31,531	8.0
PT11(Objective 1)	Norte	27,920	7.1
PT13(Objective 1)	Lisbon	24,426	6.2
IE(Objective 1)	Ireland	23,526	6.0
UK54	Essex	21,558	5.5
ES51(Objective 2)	Cataluna	21,063	5.4
UK13(Objective 2)	Northumberland, et. al.	15,192	3.9
IT8(Objective 1)	Campania	14,380	3.7
상위 10개 지역 총계		310,046	78.9(100.0)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1 지역 총계		121,783	31.0(39.3)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2 지역 총계		166,705	42.4(53.8)
상위 10개 지역중 Objective 1·2 지역 총계		288,488	73.4(93.0)
기타 EU 지역		83,018	21.1
총 계		393,064	100.0

자료 : 표 3와 동일

2) EU 무역규제, Objective 1·2 지역실업률 및 한국기업의 투자

역외생산자들에 있어서 유럽통합(지역화)의 강화는 두가지 쟁점들과

관련된다. 첫째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을 통한 역외생산자들의 EU으로의 상품수출을 규제하는 무역정책을 들 수 있다. 둘째는 1980년대 중반이후 정책적 목표로서 가시화되었던 '1992년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이다. 첫 번째 쟁점이 EU내에서 제조업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을 해오지 않았던 역외생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쟁점은 역내 유럽 및 비유럽 생산자 모두에게 관련된 사항이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 제조업투자를 직접적으로 촉발시켰던 EU의 무역규제 강화에 중점을 두어, 유럽통합의 강화와 한국투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이후 EU의 한국상품들에 대한 강화된 무역규제(특히, 반덤핑규제)는 한국의 대EU 직접투자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개별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지리적 규모가 기존 국가나 도시 및 지방의 영역을 초월한 '초국가적으로 형성된 블록화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순수 지리적 규모인 '대륙'이라는 것과는 다른 '경제·사회·정치적으로 설비된 제도화된 거대단위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EU'과 '유럽'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EU이 지닌 지리적 실체를 '지역의 힘'(regional force)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의 힘'의 강화라는 견지에서 발현된 EU의 무역규제들은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의 대EU 직접투자의 본질을 결정하였다: 방어적 투자(defensive investment). EU의 무역규제에 대응하여 실행된 역외생산자들의 방어적 투자는 1960년대 미국의 대유럽공동체에 대한 투자로부터 비롯된다. 이후 1980년대 초반 일본의 EU진출이 그러했고(Krum, 1991; Dunning, 1993),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 및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Jung, 1999a). 한국의 경우, 1995년까지 EU의 반덤핑규제로 인한 방어적 투자가 한국의 대EU 총 제조업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5%로 상당히 높았다(Jung, 2000). 방어적 투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 중 하나는 개별 투자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방어성'(defensiveness)을 탈각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현지화를 진척시키느냐는 것이다. 이는 투자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다. 한국의 대EU 투자의 경우, EU의 무역규제에 대응한 방

어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동안 EU내에서 한국기업들의 빠른 퇴출을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빠른 퇴출의 주요 요인으로는 특정 한국기업에 대한 EU의 무역규제에 대한 변화 및 한국기업의 투자이후 특정부지에서의 비용경쟁력 약화로 요약되는 현지화실패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무역규제로 인한 방어적 투자는 두가지 측면에서 한국투자의 성격을 결정했다: 1) 재벌중심의 투자와 2) 가전산업에 기반한 투자. 첫 번째 성격이 기업규모와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성격은 업종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유럽, 특히 서유럽 투자는 철저히 대기업위주의 투자였다. 1995년 현재 한국 20대 재벌의 대EU 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2% (금액기준), 무역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2.9%,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5%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이를 앞서 제시한 한국투자의 시기적 유형화에 견지에 살펴보면, 제1기와 제2기 이후의 투자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제1기의 투자가 무역업 중심의 시장추구형 투자라면, 제2기 이후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EU의 무역규제는 한국투자를 제조업내 특정업종에 치우치게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이후 EU의 무역규제는 주로 한국의 가전제품들(성숙화된 제품들; 컬러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등)에 취해졌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가전대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기업의 제조업 총투자 중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8%에 달한다. 이러한 특성들 이외에도, EU의 무역규제는 현지 가전 재벌들의 개별 공장의 성격을 생산과정, 노동과정 및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정체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 단순 조립공정에 기반한 대량생산, 2) 미숙련 또는 반숙련 노동, 3) 비용경쟁력(저임금 추구)에 기반한 가격경쟁력 확보, 4) 최종제품의 시장 지배력 약화(낮은 브랜드 이미지), 5) EU내에서 방어적으로 구축된 생산망.

이와 같은 정체성을 지닌 한국기업의 투자는 EU Objective 1·2지역의 만성적인 대량실업난의 해소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실제로, 영국 북동부의 지역개발청인 Northern Development

Company(NDC)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대부분의 EU 문제지역들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실업난 해소와 더불어 지역 GDP의 상승이라는 것이다. 표 5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Objective 1·2지역의 한국투자는 EU 무역규제 및 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EU무역규제-한국기업의 투자-Objective 1·2지역'간 결합은 지역발전의 견지에서 외적충격(EU무역정책변화·기업의 경영여건 변화 등)에 의해 지역의 내적 교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매우 불안정한 관계이다.

<표 5> EU 무역규제, Objective 1·2지역 실업률 및 한국기업의 투자

기업명	생산품목	투자연도	국가명	지역명	Objective분류	실업율 ¹	무역규제
삼성전자	컬러브라운관	1992	독일	Berlin	1	8.5	수입할당
삼성전자	브라운관용유리	1994	독일	Cottbus	1	12.2	수입할당
LG전자	CTVs, VCRs	1986	독일	Arnsberg	2	6.3	반덤핑
삼성전자	VCRs	1989	스페인	Cataluna	2	14.2	반덤핑
해태전자	CD player	1989	프랑스	Lorraine	2	9.0	반덤핑
대우전자	컬러브라운관	1993	프랑스	Lorraine	2	9.0	반덤핑
대우전자	전자레인지	1988	프랑스	Lorraine	2	9.0	반덤핑
대우전자	CTVs	1992	프랑스	Lorraine	2	9.0	반덤핑
새한미디어	비디오테잎	1987	아일랜드	Sligo	1	17.3	반덤핑
코니정밀	전자부품	1990	아일랜드	Dublin	1	17.3	-
LG전자	냉장고, 냉동고	1990	이태리	Naples	1	21.1	-
삼성전자	반도체	1994	포르투갈	Norte	1	5.0	-
삼성전자	전자부품	1990	포르투갈	Lisbon	1	5.0	-
삼성전자	전기·전자부품	1982	포르투갈	Lisbon	1	5.0	-
삼미기업	오디오 스피커	1993	영국	Cumbria	2	11.9	-
인켈	오디오, 스피커	1990	영국	Northumberland	2	11.9	반덤핑
LG전자	전자레인지	1988	영국	Tyne & Wear	2	12.3	반덤핑
LG전자	전기기구	1991	영국	Cheshire	2	15.6	-
대우전자	전기부품	1995	영국	Northern Ireland	1	15.6	-
대우전자	VCRs	1988	영국	Northern Ireland	1	15.6	반덤핑
대림정밀	위성수신기	1995	영국	Northern Ireland	1	15.6	-
신성기업	인쇄회로기판	1993	영국	Northern Ireland	1	15.6	-
카덴전자	카 오디오	1993	영국	Northern Ireland	1	15.6	-

주1) 1992-93년도 실업률 기준.

자료 : Jung, 2000, p.135, 294.

다음 인용문들은 삼성전자의 영국 북동부지역 투자를 사례로, 위에 제시된 'EU-삼성전자-영국 북동부지역간 결합'을 통해 야기된 상황

을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영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관련지어 제시한 것이다.

○ 영국 노동시장의 특성(1970년대 후반이후):

타 유럽국들과 비교해 볼 때, 영국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각종 경제 사이클이 매우 큰 폭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에서도 불안정성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사이클의 큰 진폭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구조조정이 철저히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직업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은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단기간 경기가 상승할 경우, 이에 따른 고용증대의 가속화/ 경기침체시에는 해고의 가속화(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받는 해고통지는 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수당은 지극히 적다)(Dunford, 1997: 264).

○ 영국 북부 및 서부 지방노동시장의 현실(1970년대 후반 이후):

저임금, 직업의 안정성 상실, 다른 착취적인 노동 조건. 이것이 지난 30여년 동안을 구조적 실업과 취약한 경제성장에 시달려 온 영국 북부와 서부지역을 휩쓸고 있는 지방노동시장의 현실이다. 결국 대규모, 장기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 그것은 지방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공급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의 대체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권력의 균형을 고용주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Peck and Tickell, 2000: 153).

○ 삼성전자와 영국 북동부 지방노동시장과의 관계

손쉬운 정리해고를 상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양적 유연성. 가능하다면 그러나 장기 침체지역에는 철저한 법규로 내정된 채용의 지역주의(영국 북부지방에 있는 기업은 반드시 북부에 살고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삼성은 이 지방 노동시장에서 부메랑효과에 직면하게 된다. 즉,

설립초기 부터 실행된 손쉬운 정리해고는 결국 영국 북부에서는 더 이상 채용하고 싶은 '노동자'가 없는 '양적 한계'(Hudson, 1998: 22)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삼성제품의 약한 최종시장지배력(낮은 브랜드 이미지)으로 인한 생산의 저부가가치, 지방노동시장의 저생산성 그리고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저투자는 투자표류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결국, 기업과 지방노동시장의 견지에서, 삼성 빌링햄 공장의 '투자표류'는 (1) 영국 지방노동시장에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저고용율/저생산성의 균형 (Dunford, 1997)과 (2) 기업의 만성적 저생산성/숙련 및 기술에 대한 저투자의 균형이 결합한 결과이다(Jung, 2000: 191).

<표 6> 한국기업에게 제공된 투자인센티브 현황

기업명	국가명	Objective 분류	Grant I'	Grant II'	지방세 면제내역	자산세 면제내역	대출 이자율
삼성전자	영국	2	20 ¹	○	×	×	Libor+1~3.3%
LG전자	영국	2	15 ¹	○	×	×	7.2%(평균)
대우전자	영국	1	71 ⁴	○		×	8.2(평균)
대우전자부품	영국	1	30 ¹	○	○	×	Libor+4~5%
LG전자	영국	2	19 ¹	○	n.a.	n.a.	Libor+0.5~2
삼성전관	독일	1	44 ⁴	×	×	×	n.a.
대우전자	프랑스	2	37 ⁴	○	×	○	3%
대우전자	프랑스	2	39 ⁴	○	○	×	4.5%
대우전자	프랑스	2	55 ⁴	○	×	○	n.a.

주1) 지방정부 자료.

주2) 기업사내 자료.

주3) 건물·토지 등 기업의 자본 투자액에 대한 보조금.

주4) 고용·훈련에 관해 기업에 지급하는 별도의 보조금.

자료 : Jung, 2000, p.151.

4. EU Objective 1·2 지역 투자유치 인센티브 패키지와 한국기업

1) EU지역들이 한국기업에게 제공한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사례

EU Objective 1·2지역들이 한국기업들에게 제공한 인센티브 패키

지는 한국기업이 지닌 설립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여주면서, 단기간내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표 6, 7, 8). 또한 고객 지향적인 '맞춤형 공간'(Tewdwr-Jone and Phelps, 1999) 창출하면서, 이는 EU 무역규제로 인한 시장장벽을 현지생산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표 7, 8, 9는 EU Objective 1·2지역들이 한국기업들에게 제공한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표 7> 영국 북아일랜드지역 한국기업에게 제공된 투자인센티브 현황

(단위 : US\$1,000)

	1차년도(1988~1993)			2차년도(1994~1996)		
	기업투자액(A)	Grant 액수(B)	A/B(%)	기업투자액(C)	Grant 액수(D)	C/D(%)
* Grant						
토지·건물	7,100	3,400	48.0	6,490	2,345	36.0
생산설비	10,950	5,475	50.0	27,406	11,066	40.0
고용·훈련		4,200			10,435	
총계	18,050		72.4	33,896	23,846	70.3
* 기타	· 99년간 공장부지 임대					
* 의무사항	· 3년간 460명 이상의 고용증대 및 유지			· 580명 이상의 신규고용증대 및 유지		

자료 : Jung, 2000, p.155.

○ 베를린(Objective 1)이 한국기업에게 제공한 투자 인센티브

-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 동독기업을 인수
 - 총 자산가 42.1백만마르크 공장을 약 1/5가격인 8.4백만 마르크에 인수
- 초기 2년동안 공장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의 80%를 독일정부가 지급
- 이후 기업투자 증자분에 대해 2/3에 해당하는 투자 보조금 지급
- 환경보호비용에 대한 기업부담액의 일부를 독일정부가 지원
- 기업의 의무사항
 - 현 부지에서 6년동안 생산유지
 - 고용증대의 의무 : 468명(1994)→484명(1997)→554명(1999)
 - 기업이 고용증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간 고용 1인당 25,000마르크(한화 약 1,250만원; 1997년 기준)의 페널티를 독일정부

에 지불

<표 8> 프랑스 로레인지역 한국기업에게 제공된 투자인센티브현황(1차년도; 1994~1996) (단위 : FFR1,000)

	기업투자액(A)	Grant(B)	A/B(%)
* Grant			
토지·건물	70,000	70,000(무상)	100.0
생산설비	525,000	150,000	28.6
총계	595,000	220,000	37.0
* 대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 : FFR50,000 · 10년 균등상환 · 이자율 : 3%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동안 사용전기료의 31.6% 감면 · 5년동안 자산세 감면 · 미숙련 근로자 훈련비 지원 		
*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동안 610명 고용증대 및 유지 · 투자액을 FFR630,000 증가 		

자료 : Jung, 2000, p.153.

2) EU지역들이 한국기업에게 제공한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평가

한국기업 과잉투자계획과 이를 조장한 Objective 1·2지역 지방정부들의 투자유치전략은 몇몇 지역에 국한하여 볼 때,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견지에서, 한국의 EU 직접투자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전기업들은 현지에서 주로 성숙제품을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의 견지에서, Lorraine(프), Berlin(독), Barcelona(스페인)를 제외하면, 대부분 투자유치지역의 지방노동시장 숙련수준과 생산성은 EU 평균치를 밑도는 매우 낮은 상태라는 것이다. 셋째, 인센티브 패키지의 견지에서, 대부분의 유치지역들이 European Commission에서 정한 인센티브 평균치(기업 총 투자액대비 20%미만의 보조금 책정)를 훨씬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제공하였음(표 7).²⁾ 넷째, 기업의

2) 인센티브 패키지에 관하여, EU 지방정부와 한국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와 기업의 사내자료간 인센티브 비율의 큰 격차 존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EU 차원에서 더욱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은 1980년대 후반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이 '굳건히' 이행해 왔던 '사회딤핑'(social

투자계획 및 이행된 실적의 견지에서, 초기 방대한 투자계획(예 : 전자복합단지 형성)과 실질적으로 이행된 실적간에 큰 괴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과도한 투자계획의 비참한 현실은, 특정기업의 경우, 현지 대규모 산업복합단지가 유럽생산의 중심축으로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유럽시장탐색을 위한 시험생산공장으로 전략하고 있고, 여타 기업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Objective 1·2지역의 지역발전의 견지에서, 가격경쟁력에 바탕을 둔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전략은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들의 다국적 기업 유치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업해소(고용을 확대)와 더불어 지역 GDP의 상승이었으며, 이와 같은 지역발전에 대한 양적 접근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물론 특정제품의 시장경쟁력이 우수할 경우, 생산은 지속될 수 있으며, 고용은 일정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저비용유지 경쟁력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지역의 이익이 문제지역으로 재분배되는 EU 지역발전프로그램의 견지에서 볼 때, 개별 지역들이 Commission 보조금의 경쟁적 확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경쟁에 휘말리는 것은 쓸모없고, 낭비적인 지역전략이다. 특히, 투자유치경쟁이나 보조금 전쟁은 늘 선택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들이 성공지역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균등 발전을 창출할 것이다(Dunford, 1997).

5. 결론

유럽통합의 심화 및 확대 과정과 한국경제의 변화는 한국의 대 EU 직접투자에 있어서 각기 다른 지도를 창출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대 EU투자는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워진다. 한국금융위기이전 한국투자는 EU 및 개별지역으로 공격적인

dumping)이었다. 즉 이 기간동안 영국정부는 EU 최저임금제에 합의 않은 채, 저임금·유연성에 기반한 노동시장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 기타 EU 회원국들내 몇몇 다국적기업들을 영국의 Objective 1·2지역으로 유치하게 되는 이득을 보게 되었다.

지리적 수렴을 경험했다면, 위기이후의 그것은 활발한 지리적 발산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한국금융위기가 투자 및 입지 불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지라도, 실제로 EU내 한국기업의 불안정성은 1980년대 후반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금융위기 이후 불안정성의 성격은 위기 자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기 보다는 기존 불안정성이 강화된 형태일 뿐이다.

EU 지역발전의 견지에서, 한국기업들의 불안정성은 EU 통합의 심화, 영국의 신자유주의로의 정책편향, Objective 1·2지역의 재생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몇몇 한국기업들의 투자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정성'은 EU Objective 1·2지역의 정체성인 '주변성'과 맞물리면서, 기업과 지역모두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제한된 경로를 밟아가고 있을 뿐이다.

6. 참고문헌

- Dunford, M., 1997, "Divergence, instability and exclusion: regional dynamics in Great Britain," in Lee, R. and Wills, J.(eds.), *Geographies of Economies*, Arnold, London and New York, 259-277.
- Dunning, J. H., 1993, *The Globalisation of Busines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udson, R., 1998, "Restructuring region and state: the case of North East England,"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89(1), 15-30.
- Jung, S.-H., 1999a, "The global-regional interplay of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ropean Union," in Phelps, N. and Alden, J.(eds.) *FDI and the Global Economy: Corporate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Global-Localisation*,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and London Stationary Office, 87-102.
- Jung, S.-H., 1999b, "Entries and exits: case studies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consumer electronics chaebols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2(1&2), 145-67.

Jung, S.-H., 2000, *The Global-Local Interplay: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ropean Union*, Unpublished D.Phil. Thesis, The University of Sussex, Brighton, UK.

Krum, J. R., 1991, "Europe 1992: strategic marketing issues for American multinationals," *European Business Journal*, 3, 39-47.

Peck, J. and Tickell, A., 2000, "Labour markets," in Gardiner, V. and Matthews, H.(eds.), *The Changing Geography of the United Kingdom*, Routledge, London, 150-168.

Phelps, N. A., 1997, *Multinationals and European Integration: Trade,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